

오늘의 기사관

14일
▶광주전남경충 금요조찬연
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
호텔 4층 연회장. 강용일(뉴페러다임 교육원장)
씨가 감사로 '자기혁신과 성공파트너십'에 관해
강연.
▶뉴캐론 광주지역 신차발표회=오전 11시
광주신안파크호텔 1층. 조남홍 기자차 사장 등
광주·전남지역 인사 및 고객 400여명 참석 예정.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선발대회=오후 6시
목포문화예술회관.
▶제 4회 광주평화통일포럼=오후 3시 광주교
육대.
▶2006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오
후 6시 여수전남경기장. 41개 종목에 전국에서
생활체육 선수·임원·동호인 등 6만여명 참석.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제 33차 지구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선발대회

연차대회=오후 1시 광주 구동체육관. 라이온스
협회 회원·가족 등 4천여명 참가 예정.
▶대나무골 실버건강대학=오전 10시 담양문
화회관 소공연장.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오후 3시30분 목포
평화광장. 푸른바다 음악회 '초록빛 바다'. 오후 5
시30분 목포마당극 '아빠의 정초'. 오후 7시 우리
춤의 신명 '파도를 타고'.
<15일>
▶2006 DJ전국 평화마라톤대회=오후 2시 목
포 해양대학교.
▶목포 YMCA 창립 60주년 성가 합창제=오후
7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오후 8시 목포 평화
광장 일대. 목포평화바다 해상불꽃쇼 '평화의 빛
이어!' 오후 2시 남해안해양민속 초경연 '진도
다시래기'. 오후 3시 목포해경 해난구조 및 헬기레

펠 구조시연. 오후 6시30분 목포 상징 뮤지컬 '난
영'.
▶로미오줄리엣=14일(금)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 초·중·고 5천원, 성인 1
만원.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보글보글 스폰지밥'=
15~16일 오후 2시, 4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전남도립극단 상설공연=15일(토) 오후 5
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담양 죽녹원 상설 문화공연=15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 담양군예술인협회
주관으로 가곡과 요들송, 이색악기연주 등.
▶제 305회 진도 토요일속여행 상설공연=15일
(토)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산 자와 죽은자의 대화'를 주제로, 가아금 산조·
남도민요·흥타령·관소리·진도 아리랑 등 공연.

검색절정 키워드

이번 주 네티즌들에게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검색
어는 황사였다.
특히 지난 8일 최악의 황사로 모래 먼지를 뒤집
어쓰면서 주말 나들이를 망친 네티즌들은 뒷북 예
보란 기상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황사 예보를 하루 전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기상
청 수준이냐"며 포털 사이트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약국과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
자들이 잇따랐고, 마스크를 구입하는 시민들도 크
게 늘었다.
황사 때문인지 지난주 검색어 1위였던 진해 군
항제 및 봄꽃 축제 일정·교통 정보·주변 맛집 등
에 대한 검색 빈도도 크게 줄었다.
영화배우 박해일(29)씨의 결혼 소식도 네티즌
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방송
작가 서윤선(26)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네티즌 황사 '뒷북 예보' 불만 폭주

지난 2000년 처음 만난 이후 5년여간 교제해왔다.
박씨는 2001년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영화계에
데뷔한 뒤 '인어공주', '소년, 천국에 가다', '연애
의 목적' 등에 출연,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할값매각 의혹도 시사
문제로는 오랫동안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잘못 계산됐다는 잠정 결
론을 내리면서 할값 매각 의혹을 가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BIS비율이 다시 잠정지로 떠
오르고 있으며, 네티즌의 관심도 높았다.
무릎 인대 파열로 독일 월드컵축구 본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축구대표팀의 골잡이 이동국
(27·포항 스틸러스)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아
네티즌들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동국은 지난 5일 프로축구 K-리그 인천전에서
서 무릎을 다친 뒤 축구협회 운영실(연세대 의대

주간 급상승 검색어

- 1위 황사 6위 덕터깡
2위 박해일 7위 정몽규
3위 저울봉가 8위 동원호피발
4위 론스타 9위 달콤살벌연인
5위 이동국 10위 황구림

전시

▶제 4회 전남 동·서 교류전=15일(토) 오후 4
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여수 지역 예술
인들의 음악·무용 공연.
▶서양화가 박수만씨 창작지
원전=19일(토) 광주 롯데회관.
박씨는 '미(迷)·인(人)·도(道)'
를 주제로 우화적이고 만화적 감성을 자아내는 작
품을 선보인다.
▶최상중 서양화전=23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주)광주신세계 창립 11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지난
해 12월 작고한 서양화가 최상중씨의 유화 23점이
전시된다.

역사속의 오늘

▶임진왜란 일어난(1592)
▶미국 링컨 대통령, 워싱턴에 있는 극장에서
저격 당함(1865)
▶영국 여객선 타이타닉호, 북대서양서 빙산과
충돌로 침몰, 1503명 사망(1912)
▶호남고속도로 개공(1970)

뉴스퀴즈

7. 광주에 연고를 둔 KIA 타이거즈를 비롯, 8개 팀이
지난 8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신화
의 열기를 이어 10년만에 400만 관중을 돌파할 지 관
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①프로 축구 ②프로 야구 ③프로 배구 ④프로 농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
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
위 광주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본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4일(음 3월 17일 乙酉)
子 36년생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48년생 미운사람이 보이면 말
조심을 해야 한다. 60년생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나 소독은 작다. 72
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84년생 애인이 생기자만 마음에 안 든다.
행운의 숫자 : 09,36
丑 37년생 작은 병도 살펴봐라. 49년생 분수를 지키면 큰 화도 비껴간
다. 61년생 욕심을 버리라 큰 득은 없다. 73년생 인생행로에 변화수
가 보인다. 85년생 여유 있게 생각하라 계획은 꼭 성사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40
寅 38년생 호랑이에게 물러가듯 정신을 차리면 소화에 고민다. 5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62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큰 도움이 못준다. 74년생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
다. 행운의 숫자 : 21,25
卯 39년생 놀라운 일이 생기자만 큰일은 아니다. 51년생 화를 지킨다 마무
리가 좋으니 재물도 얻으리라. 63년생 옛 일은 잊고 새로운 일을 모
색하라. 75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편사가 생기나 해결은 곧
된다. 행운의 숫자 : 14,38
辰 40년생 새로운 문에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점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64년생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은 쉬
워진다. 76년생 맺을 내고 나가보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29
巳 41년생 지난 일이 괴롭힐 수 있으니 옛 일을 살펴봐라. 53년생 욕심
이 부질없다 변화를 삼가 하라. 65년생 전할수록 조심하라 우정이
깨질 수도 있다. 77년생 눈물이 보일 수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 03,45
午 42년생 애정문제로 구설수가 생기거나 명예가 걱정된다. 54년생 인
생의 경험이 후관전의 전라이나 지혜롭게 진행하라. 66년생 아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기회를 만들라. 78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
니 옛정을 되살려라. 행운의 숫자 : 05,26
未 43년생 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살펴봐라. 55년생 남편이 고민
한다. 결에서 살펴봐라. 67년생 친구의 지혜를 빌리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79년생 젊음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신체의 도움을 청하라.
행운의 숫자 : 01,35
申 44년생 심상을 굳건히 고봉이 따를 수도 있다. 56년생 미리 준비하
면 실패가 보인다. 68년생 힘의 안배를 조절하면 파자가 유통한다.
80년생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 속임수가 있
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32
酉 45년생 진땀을 분명히 하라 득과 실이 교차된다. 57년생 자녀의 고
충이 보인다. 대화하면 풀려라. 69년생 불언이 이별수다. 대화
로서 해결하라. 81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풀린다.
행운의 숫자 : 04,42
戌 46년생 주변의 도움이 있다. 고민이 풀려간다. 58년생 승리를 역류
하면 결과는 없다. 70년생 이성으로 마음에 잊갈리니 중심을 찾아
라. 82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울라. 큰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6,28
亥 47년생 타인과 구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59년생 말실수가 열려되
니 지난 일을 회개하라. 71년생 타인의 입으로 공든 말이 무너지니
주변인에게 베풀라. 83년생 안고 끝에 악수한다 으르 동안 생각한
것을 결단하라. 행운의 숫자 : 02,43

316 수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타이
즈의 주장 조한승 8단이 극적인 불계
승을 거둬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이 조 8단은 이번 대국에서 몇볼 수 있듯
국면을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초반 하변에서 흑의 맹공을 백
88까지 사석작전으로 깔끔하게 벗어
나는 유연한 발상을 보여주었다.
이상승 8단의 패인은 하변 147에
이은 수다. 이 수는 백이 188의 곳에
두더라도 189에 늦춰받으면 된다. 그
러므로 이 수 대신 상변 150의 자리
에 두어 역공했다면 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엠게임에는 아직 이창호라는 거함
이 버티고 있어 다소 여유가 있다. 이
상승 8단은 신진 강호 윤준상 4단을
찍은 여세를 몰아 이 판까지 이겨 우
세를 확정짓고 싶었던지 초읽기에
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집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까도 조 8단의 선방에
막혀 우승컵의 향방을 이창호 9단에
계 넘겨가 되었다. 백 316수 끝 백 불
계승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극적 역전승 본선 19국 총보(1~316)
白 조한승(8단) <타이젠>
黑 이상승(8단) <엠게임>
생명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박영훈, 기성전 2연패
박영훈 9단이 13일 한국기원에서 열
린 제17기 기성전 도전 5번기 제 3국에
서 안조영 9단에게 161수 만에 흑 불계
승을 거두고 대보 2연패를 달성했다.
3-0 완승을 거둔 박 9단은 기성전과
물가정보배, 신인왕 등 3개 타이틀 보
유자가 됐다. 안 9단은 지난 2002년 패
왕전 이후 4년 만에 타이틀 도전에 나
섰으나 어렵게 고배를 마셨다.
3귀생을 하며 초반부터 실리를 확보
한 박 9단은 중반 안조영 9단의 반격을
받았으나 맞대응하며 흐름을 리드했
다. 안 9단은 좌변 패를 이용해 중앙 흑
대마 공격에 나섰다 박 9단의 깔끔한
타개 솜씨에 역전의 꿈을 접고 말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28>
Is that all?
이것이 전부세요?
A:How about dessert?
B:I'll have cheese cake.
C:I'll go for vanilla ice-cream.
A:All right. Is that all?
B:Enough. Thank you.
A:디저트는요?
B:저는 치즈케익을 먹을래요.
C:저는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먹을래요.
A:좋았어. 그게 전부야?
B:네, 감사합니다.
How about ~?(~은 어때?) : 이미 대화에 언급된 주제 내
의 또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의 표현.
I'll go for ~: 「~을 먹을래요.(= I'll have~)」
Is that all? : 「그게 전부야? (=Is that it?)」
Enough. =네, 됐어요(=That's all.)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28>
調子(ちょうし)はどう?
요즘 어때?
A:やあ、金(きん)さん。調子(ちょうし)はどう?
B:うーん、どうにかこうにかってところかな。まだ勝手(かって)
がわからないもんだから。
A:わかるよ。でも心配(しんぱい)しなくても大丈夫(だいじょうぶ)だ。初(はじ)めは、新入生(しんにゅうせい)は みんな口
惑(くまど)とまど)うんだから。
B:日本人(にほんじん)の口生(くせう)は(がくせい)でも?
A:야아- 김씨! 요즘 어때?
B:음, 그러저러 이랄까? 아직 사정을 모르니까..
A: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에는 신입생은
모두 어리둥절하니까.
B:일본인 학생도?
調子(ちょうし)はどう? : 요즘 어떻게?
勝手(かって) : 사정, 모양, 상황
口惑(くまど)う : 어리둥절하다, 당황하다, 망설이다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375>
木
둔하다
A:以后(以后)事情(事情)重点(重点), 别(别)那么(那么)来(来).
以后(以后)事(事)情(情)重(重)点(点), 别(别)那(那)么(么)来(来)
(以后(以后)事(事)情(情)重(重)点(点), 别(别)那(那)么(么)来(来))
B:我(我)注(注)意(意)重(重)点(点)了(了),
我(我)注(注)意(意)重(重)点(点)了(了)
(我(我)注(注)意(意)重(重)点(点)了(了),
我(我)注(注)意(意)重(重)点(点)了(了))
C:完(完)整(整)地(地)进(进)行(行)修(修)理(理), 那(那)样(样)的(的)重(重)点(点)就(就)没(没)有(有)了(了).
完(完)整(整)地(地)进(进)行(行)修(修)理(理), 那(那)样(样)的(的)重(重)点(点)就(就)没(没)有(有)了(了).
D:木(木)是(是)很(很)耐(耐)用(用)的(的), 但(但)是(是)木(木)的(的)耐(耐)用(用)是(是)有(有)限(限)的(的).
木(木)是(是)很(很)耐(耐)用(用)的(的), 但(但)是(是)木(木)的(的)耐(耐)用(用)是(是)有(有)限(限)的(的).
木(木)是(是)很(很)耐(耐)用(用)的(的), 但(但)是(是)木(木)的(的)耐(耐)用(用)是(是)有(有)限(限)的(的).
<리틀치아나 중국어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245>
簡體字(간체자)
간략한 간, 몸 체, 글자 자
현재 중국 대륙(大陸)에서는 정체자(正體字)가 아닌 좀 더
간단한 모습의 간체자(簡體字)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
는 약체자(略體字)를 사용한다.
간(簡)은 죽(竹)+한(閒: 홀)으로, 한 작적 사이를 두곤 위
는 대쪽이다. 체(體)는 레(豊: 이어지다)+골(骨)로, 쪽 이어
지는 뼈로 몸을 나타낸다.
1956년 중국에서는 문맹(文盲)을 퇴치하는 목표로 보다
쉽 게 문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자간소화' 방안이 추진되어 현
재 2000여 자의 간체자가 있다. 게다가 올해에는 중국대륙의 공
식문자로 간체자를 확정하는 바에대(臺灣)이나 홍콩에서
사용하던 정체자는 그 입지가 더욱 약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 젊은이들은 정체자를 잘 읽지 못한다. 옛 문헌(文
獻) 속의 한자는 당연히 우리가 쓰는 정체자로 되어있기 때문
에 중국의 대학생들은 별도로 학습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우
리도 간체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파악하여 간체자를 익히지 않
으면, 중국에 가더라도 간판이나 제대로 읽을 수 없다. 글 프로
그램에서 한자로 전환 한 뒤 글꼴을 '선명조 간자'로 지정해 주
면 정체자가 간체자로 바뀌어 쉽게 간체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